【현장보고】

평화의 섬 교동도를 가다

김일한 (동국대학교)

"왜 평화를 일상의 인사로 사용하는 문화권에서조차 수없이 많은 비참한 전쟁이 치러졌는가?"[1] 전쟁을 반대하거나 또는 전쟁에 찬성하는, 서로 입장이 다른 세력은 언제나 동일한 목표, 즉 평화(peace)를 주장한다. 특히 흑(敵)과 백(友)의 구분이 분명했던 냉전시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나와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와 그들의 평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지만, 교훈은 교훈일 뿐 뼛속 깊이 각인된 증오와 공포는 여전히 우리의 혈관을 타고 끝없이 배회한다. 누가 평화를 주장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동도의 '위험한' 평화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 북한군이 쏜 포탄이 날아들었다.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 4명을 포함해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평도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군이 남한 영토를 직접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었고, 8개월 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더불어 주변 섬마을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다. 당시 교동도 상황을 묘사

1) 히즈키아스 아세파,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적 정치 · 경제 · 사회 구조에서』 (춘천: Korea Anabaptist Press, 2014).

한 신문기사를 보자.

> 26일 인천 강화군 창후리 해상여객터미널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70여 대의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교동도'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이지만, 교동도를 찾는 외지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이라 가족 단위로 교동도에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발길이 뚝 끊어졌어. 있는 사람도 나가려는 판인데 뭐…." 5년째 터미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아무개(47)씨는 교동도를 찾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했다.
>
> 교동도에서 태어나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다는 이충상(88)씨는 "6 · 25 전쟁도 겪어봤지만 그 이후로 섬이 이렇게 불안하긴 처음"이라며 "그나마 교동도는 연평도만큼 군사시설이 많지는 않으니까 북한이 여길 공격하진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 "운명에 맡겨야지. 별 수가 있겠냐"고 대꾸했다.
>
> 섬을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은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혁유(76)씨는 "내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데 가장 좋은 건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니겠냐"며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릴 철저하게 막아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연평도처럼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한겨레신문, 2010.11.26)

2014년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연륙교'가 완공된 이후 교동도는 외지인의 방문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면서 외부세계와 통하는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교동도는 여전히 '민통선마을'이라는 현실적인 제약과 함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위험한 평화'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으로부터 기행문 형식의 교동도 원고를 주문받았을 때 필자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독자들은 교동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지역의 간단한 역사나 관광에 필요한 지역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난다. 잘못 손댔다

가는 오히려 망신만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애초부터 기행문과 같은 맛깔스런 글쓰기 재주는 필자의 능력 밖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현재까지 '교동도가 겪은 현대사를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해보자'는 것이었다. 온몸이 시리도록 아프고 징글맞은 역사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완서 선생의 문장을 옮기면 '한번 글을 깨우치고 나면 다시는 문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슬픈 역사지만 어쩌겠는가.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을.

교동 이야기의 첫 출발은 민통선마을에서부터 시작하자. 교동도는 한반도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가장 가시적인 상징이자, 이제는 냉전체제의 화석이 되어버린 시공간이다. 교동도는 한강 하구 물길 사이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최북단의 아름다운 섬이자, 남북한 접경지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54개 민통선마을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교동도 인근 지도

분단체제의 살아있는 화석, 민통선마을

뜬금없을지 모른다. 민통선마을이라니. 독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그런 마을이 있나' 혹은 '그런 마을도 있어'라는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만 한 민통선마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 1954년 2월부터 교동도 등 접경지역 마을들이 민통선마을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남북한 접경지에 모두 123개의 리(里) 단위 민통선마을이 지정 · 관리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인출입통제선의 북상에 따라 절반 이상의 마을이 민통선마을에서 해제되면서 2012년 현재까지 54개 마을이 남아 있다. 가장 늦게 조성된 민통선마을은 해마루촌(2003)이고, 가장 최근에 해제된 마을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2012)이다.

민통선마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민간인출입통제선 등 약간의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은 국경(國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접경지역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접경지역은 6 · 25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형성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과 접한 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까지인 '민간인출입통제구역(CCZ, Civilian Control Zone)', 그리고 민간인 출입통제선 남방지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비무장지대는 휴전선 남북 방향으로 약 2km 후방 지역이며 유엔(UN)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은 800m에 불과한 곳도 있다. 접경지역 중에서 민통선마을은 남방한계선과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사이인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형성된 마을이다. 즉 민통선마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최전방 민간인 거주 마을인 것이다.

그렇다고 민통선마을이 똑같은 목적으로 조성된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나 성격에 따라 마을의 유형이 구분되었는데, 자립안정촌, 전략촌(재건촌, 통일촌), 비무장지대촌, 실향민촌으로 서로 이름이 다르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휴지 등 농지를 개간해 식량난을 해소할 목적 등으로 마을 조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통선마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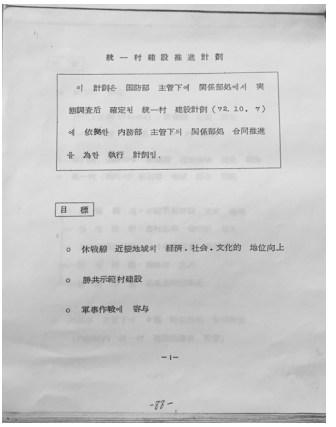
	자립안정촌	전략촌	비무장지대촌	실향민촌
만간방위체제 구축	△	○	×	×
북방의 유휴농지 개척	○	○	○	○
대북선전 시행	×	○	○	×
주민편의 도모	○	○	×	○

*자료: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통선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2, p. 20.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민통선마을의 전형적인 모델은 ‘통일촌’이다. 북한의 선전촌에 맞대응하기 위해 민통선 안쪽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이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1972년 조성)와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1973년 조성) 단 2곳이다. 백연리 통일촌은 일반 가정 40가구, 제대 군인 40가구 등 총 80가구가, 유곡리 통일촌은 일반 가정 30가구, 제대 군인 30가구 등 총 60가구가 입주했다. 통일촌은 국방부 등 8~9개 중앙정부부처의 지원으로 마을 조성계획이 수립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입주민들에게는 주택, 농지, 주민복지 제공 등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통일촌 입주민은 신원이 확실한(?) 인근 지역주민과 실향민, 그리고 반공의식이 투철한 선발된 엘리트

제대 군인과 그 가족들이었다. 1970년대 이스라엘의 ‘키브츠’를 모방해 만든 통일촌 민통선마을은 전선 방위는 물론 유휴 경지의 활용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 당시 읍내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전기가 보급되었고, 세대 당 3,000~5,000여 평의 논과 비슷한 규모의 밭이 제공되었다.[2] 경운기와 소를 보급하고 당시 일반가정에는 희귀했던 전화가 집집마다 설치되었을 정도였다. 유곡리 통일촌에는 학생 통학용 버스와 기사까지 배치되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휘발유 값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납했다고 알려진다.

통일촌 민통선마을 건설 추진계획


統一村建設推進計劃

이 計劃은 國防部 主管下에 關係部処에서 實態調査后 確定된 統一村 建設計劃 (72. 10. 7)에 依興한 內務部 主管下의 關係部処 合同推進을 為한 執行 計劃임.

目 標

- 休戦線 近接地域의 經濟·社会·文化的 地位向上
- 勝共示範村建設
- 軍事作戦에 寄与

-1-

-77-

‘통일촌건설추진계획’문서는 통일촌 건설의 목표를 ‘휴전전 근접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 승공 시범촌 건설, 군사작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통일촌은 국방부 등 8~9개 중앙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마을 조성계획이 수립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마을이다.

2) 힘들게 개간한 농지가 오늘날에 와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입주 초기 정부가 약속한 집과 땅은 원소유주와 국유재산의 소유권 벽을 넘지 못하고 갈등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시행된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은 입주 당시 정부에서 인정한 경작권만 믿고 개간한 토지가 소유권자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토지 소유권분쟁은 주로 강원도 수복지역 내 민통선마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민통선마을 중심의 접경지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당시 입주경쟁은 지금의 입사시험에 비유할 정도로 수 십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군(郡)과 군(軍) 등 민·군 합동으로 구성된 입주민 심의위원회는 입주민의 연령과 가족 수까지 제한할 정도로 입주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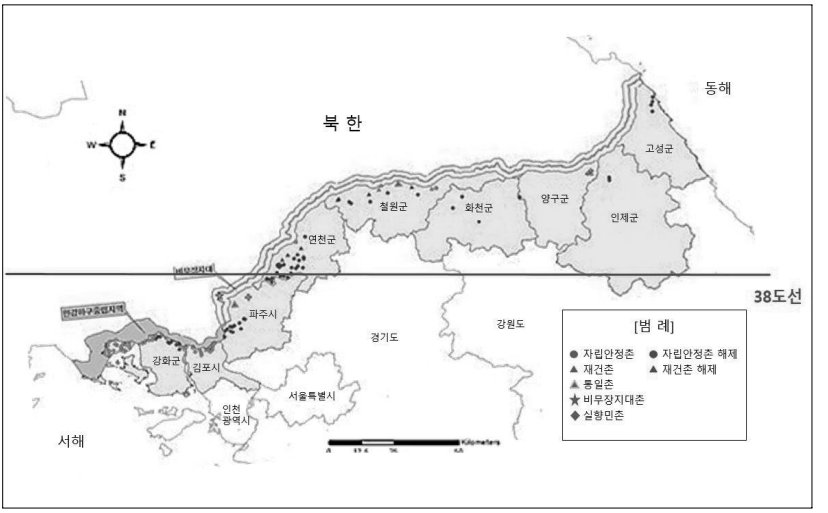
최전방 마을의 특성상 군사적 목적도 강했는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민통선마을(2007년 해제)은 1970년 원주민 3가구를 제외하고 100가구 모두 제대 군인이 이주하면서 세칭 '예비군 마을'로 불렸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2리(1968년 조성) 주민들은 군인들과 함께 경계근무를 담당할 정도로 군사안보적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선조가 살던 고향을 뒤로하고 마을주민이 통째로 이주해서 민통선마을을 조성한 곳도 있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1960년 조성)는 1959년 경북 울진에서 태풍 사라호 피해가족 800여 명이 강원도 산골 최전방으로 마을 전체를 이주한 사례이다. 주민들은 태풍 피해로 삶의 터전이 사라지면서 먹고 살 새로운 방편이 필요했고, 정부는 민통선 이북지역의 개간과 군사적 목적으로 이주민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민관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경우일 것이다.

마현1리 입주민들은 1960년 4월 4일 울진초등학교에서 고향 친지들의 환송을 받은 후 23대의 군 트럭에 몸을 맡긴 채 횡성~춘천~화천을 거친 1,400여 리의 길을 3박 4일간의 긴 여정 끝에 도착했다. 1959년 4월 7일 도착한 이들을 반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닌 사람의 키를 넘는 억새밭 사이에 횡 하니 놓인 60여 동의 군부대 천막이었다고 한다. 곳곳에 널려있는 전쟁의 상흔과 발자국을 떼어 놓기가 겁나는 지뢰밭 공포가 엄습했지만 이들은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믿고 '잘살아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12일 후에 4·19가 나면서 정권이 바뀌어 버렸고 이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강원도지사와 철원군수도 모두 교체되면서 그동안의 약속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24인용 군용 천막에서 이주생활을 한 이들은 10여 년간 버려진 황무지를 거의 맨손으로 개간하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어렵게 농토를 개간했다. 주민들은 지천에 널린 탄피를 주워 30여 리 떨어진 장터에 나가 보리쌀과 바꿨고 밀주를 담가 군인들에게 팔며 생활을 이어나간 역사가 1989년 마현청년회가 세운 기념탑에 남아 있다. “사라호 태풍 66세대가 이 땅에 입주해 고달픈 천막 생활과 허기진 배를 주리며 피땀으로 얼룩진 괭이와 호미로 6 · 25동란이후 버려진 황무지를 옥토로 가꾼 개척정신을 알아야 한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상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탑을 세웠다"고 적고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마현1리는 강원도 속의 경상도 마을로 존재한다. 마현1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집안 제사 등 가족사를 돌보기 위해 고향 울진을 찾고 있다.

민통선마을 분포도



*자료: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통선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2012, p. 21.

2017년 현재 미해제된 54개 민통선마을 중 45개 마을이 자립안정촌이고, 교동도, 김포, 강화 등 대부분 한반도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 민통선마을의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는 이유는 한국전쟁의 결과 때문이다. 해방 이후 남북경계선인 38선과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의 교차점을 기준[3]으로 동부 지역의 수복지역에는 통일촌, 재건촌 등 새로운 인공마을이 조성된 반면, 서부 지역의 미수복지역에는 기존의 마을 남쪽에 민간인출입통제선이 설치되면서 민통선마을이 구획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민통선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경험이 확연히 다르다. 수복지역 민통선마을은 원주민 일부를 포함해서 새로운 입주민들이 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개간 등 생존투쟁과 갈등이 심했다면, 미수복지역 민통선마을은 마을 내에서 한국전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이후의 갈등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교동도는 한반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자립안정촌이고, 1954년 섬 전체가 민통선마을로 지정된 이후 오늘까지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기억과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교동도, 전쟁과 분단에 갇힌 섬

필자가 교동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과제를 수행하면서부터이다. 과제는 분단 이후 70년 동안 남북한의 냉전 경험, 즉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쟁, 휴전선이남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통선마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치 않았다.[4] 따라서 제한된 자료와 논문, 그리고 주민들의 구술을

---

3) 38선과 휴전선의 교차점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매현리 일대로, 1974년 11월 발견된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의 제1땅굴 인근 지역이다.

4)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냉전과 분단의 삶을 다룬 논문은 흔치않다. 김일한, "'위

엮어 마을의 기억과 경험을 추론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5] 냉전의 최전선, 중무장한 군사지역에서 비무장으로 살아가는 민간인들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민통선마을은 각자 다양한 전쟁 경험을 공유한다. 피난과 귀향, 이념갈등과 민간인 학살, 자경단과 유격대 활동 등 시기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부 지역(김포, 강화, 교동) 민통선마을은 고향마을에서 전쟁, 피난과 귀향, 북한에 부역한 민간인 학살, 유격대 결성과 활동을 경험한 곳이다.[6] 교동도는 전쟁과 분단의 갈등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동도의 현대사는 한국전쟁이라는 커다란 변곡점과 각 변곡점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김귀옥(2006)은 교동도의 역사를 한국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후로 구분해서 파악한다. 한국전쟁 전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 공산주의가 등장한 시기, 한국전쟁 초기 북한 인민군이 일사천리로 남진하면서 교동에도 지역 좌익들이 중심이 되어 '인공정치'를 행했던 시기, 1950년 9월 28일 인민군 퇴각 이후 황해도 연백 유격대와 미군 첩보대 '타이거 여단'에 의해 '군정'이 선포된 시기이다.

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16) ; 김귀옥,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해방 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2008) ;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강화도 교동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 제71호 (2006)를 참조할 것.

5) 필자는 2017년 초 교동도마을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사를 채록했다.

6) 강원도나 경기도 동부 지역 민통선마을은 대부분 195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마을 내부의 이념갈등과 관련된 경험은 심각하지 않다.

한국전쟁 전 교동도의 상황은 한반도 여타 지역과 다르지 않다. 해방 직후 교동도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친일파들이 정리되고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들로 이장 등 지도자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사회주의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당시 급진적 사회환경은 대다수가 전업 또는 겸업 농민이었던 교동 주민들에게 소작문제, 토지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토착 사회주의들의 토지분배, 농지개혁 주장에 힘입어 한국전쟁 직전 지주들의 농지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장기상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분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다. 다시 김귀옥의 시기 구분으로 돌아가서 교동도의 한국전쟁사를 살펴보자.[7] 전쟁이 시작되고 인민군은 거침없이 남하했고, 교동도에는 '인공정치'가 시행되었다. 면과 리 수준에서는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하위 정치기구들이 세워졌고, 지역 좌익들로부터 소위 '인민재판'을 당하거나 치안대에서 고문수사를 받았고, 야산에 방호용 '참호'파는 일에 동원되었으며, 40여 명의 주민들이 인민의용군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9월 28일 인민군의 퇴각으로 인공정치는 흐지부지 끝이 났다.

> 적치하의 남로당원들은 자기들 세상이 왔다고 날뛰며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그들의 국가를 부르게 하면서 무산자 혁명의 당위성을 역설하기에 바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네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들의 선전과 의용군 차출에 여념이 없었고, 밤에는 삽, 곡괭이를 들고 나오도록 강요했고 산으로 끌고 가 도치카 파는 데 혹사시켰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슬 퍼런 위압에 겁을 먹고 혹시나 반동분자로 몰려 불이익을 당할까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교동면 인사리 안병철의 증언)[8]

---

7) 교동 주민들은 "좌익이 교동 정권을 장악"했던 것을 "인공정치"로 명명했다. 그리고 인공정치에 대해 주민들 대부분은 별다른 적개심이나 분노감을 찾을 수 없었는데, 지역 좌익들은 대부분 교동 출신이었고, 교동 자체가 친·인척의 연고망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김귀옥, 2006.

8) 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 『6·25 參戰 江華靑少年遊擊隊 奮戰史』(2008), p. 339.

인민군의 퇴각 이후 교동도는 미군과 비공식 군부대에 의한 ‘군정’ 시기로 빠져들었다. 인민군의 퇴각과 함께 교동도는 권력공백기, 즉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섬에 남아있던 소년, 청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년단, 청년단 등 지역 자치조직을 만들었다. 황해도 연백군 출신의 피난 청년들이 ‘특공대’, ‘유격대’를 결성해 교동도에 출몰했다. 1950년 12월초 교동도의 청장년 100여 명이 국민방위군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1.4후퇴와 함께 남하한 연백 특공대에 의해 ‘인공정치’에 ‘부역’한 ‘빨갱이’ 학살이 벌어졌다.[9)]

교동도를 비롯해 김포와 강화도 지역의 대부분은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원주민들이 인민위원장, 여맹위원장, 청년부장 등 위원회 활동에 다수 가담했다. 그리고 인민군의 후퇴와 함께 그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다.

> 봉화산이라고 거 해성면(황해도 연백군 해성면)에서 제일 큰 산인데 염전이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그 6 · 25전쟁 때 … 그런데 거기서 아주 그냥 사람들 많이 전사했죠. 죽었지. 그래서 총에 맞아서 많이 죽고 그전엔 우리도 이북하고 가깝다 이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다 붙잡아놓고 이 새끼줄로 다가 다 끌어가지고선 줄로 서서 쏴 죽여. 사람을. 잔인했지 뭐 … 반장은 매도 많이 맞고. 서한(리)에서는 매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 나쁜 사람들이지 사람 하나 죽은 게 아니잖아.(교동면 대룡리 ○○○)

> 부장(당시 통장 정도 역할) 보던 사람들이 쟤네들 들어오게 되니깐 그 사람들 또 불러내서 뭐 인민위원장이니 무슨 뭐 청년위원장이니 뭐- 그런 걸 또 맡고 그런 거 시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로 몰리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상하고… (김포시 마조리 ○○○)

9) 부역자에 대한 구분은 모호한데, 당시 해방 이후 결성된 ‘농민조합’ 조합 가입자들, 인민위원회 활동자들, 피난갔다 돌아온 귀향자들 등 다양한 민간인들이 ‘빨갱이’로 취급받았다.

월곶면사무소에는 인제 그 또 인민위원장이 일하고 위원장이지. 또 지소, 파출소에는 또 내무소장. 내무소거든 걔들은 또. 내무소장이 있고 지소장이 있고 그랬어. 그래서 걔들이…. 제일 없는 사람들. 남의 집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땅이 띠어주고(떼어주고) 그랬어. 땅 그때 다 몰수 했더랬어요. (그런데) 여기(국방군) 또 들어오니까 치안대라는 게 있어.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치안대. 동네에 치안대가 조직해가지고 빨갱이로 활동한 사람들 그냥 무참하게 죽였지.(김포시 조강리 ○○○)

이 앞(마을)에는 반 이상 죽었다 그래. 저기 당산리 그런데 참 많았어. 저 농사 저기 없고 그러니까 남에 집에 몸 살잖아. 그런 사람 쫓아 댕기면서 그걸 도장하나 찍은 거 그거이 빨갱이야. 그러니 애먼 사람이 많이 죽었지. 그 사람들은 지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많았어. …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하면서 인민군이) 그때 다 후퇴했지. 여맹위원장, 뭐 그 청년부장 뭐 다 있었지. (그리고) 다 죽었지. 다 죽었어.(강화군 철산리 ○○○)

1·4후퇴 시 교동에는 특공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대개 한복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연백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 난정리 주민 18명이 '돌우물'에서 학살됐습니다. 박봉기라는 사람과 몇 명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딱콩총으로 무장을 했었습니다. 나는 18명의 사람을 인솔해서 돌우물로 갔습니다. …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가던 중 총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 그녀는 돌우물의 학살에서 운 좋게 살아났지만 다시 발각이 되어 학살된 것입니다. 그녀는 18살로 월북한 조복성 씨의 딸이었습니다.[10]

인천상륙작전 이후 교동도에 나타난 '유격대'는 지역방위 역할과 함께 지역의 점령군이 되었다. 전쟁 중 접경지에는 자생조직인 소년단, 청소년유격대, 대한청년단(청방) 등 다양한 자생조직과 1950년 12월경 유엔군이 북한 지역에서 철수할 당시 황해도 연백 지역에서 활동했던 현역

10) 최태육·구본선, 2004, 「교동, 석모도, 서도 등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 김귀옥, 2006 재인용.

낙오병, 낙오 경찰, 우익치안대, 대한청년단, 학도대들이 유격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권총 등으로 무장했으나 정식 군인은 없었으며, “정보부대”를 자처하며 “리 · 동마다 한두 개가 있을 정도”였다. 이 부대들은 반공을 앞장세우며 교동 전역에서 유혈통치를 하여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11)]

국군은 북한군 주력에 대한 견제와 그들의 후방을 교란하는 제2전선을 만들기 위해 민간 ‘결사유격대’를 운용했다. 미군도 1951년 1월부터 서해안으로 탈출했던 자생적인 의용군들을 유격대로 활용해 백령도의 ‘레오파드(Leopard)기지’, 강화도의 ‘울팩(Wolfpack)기지’, 주문진의 ‘거크랜드(Kirkland)기지’ 등 비정규부대를 조직했다. 1951년 7월 미 극동군사령부는 이들 유격부대들을 제8240부대로 통합했고, 1953년 초에는 그들의 규모가 2만 명이 넘었다.[12)] 그들은 비정규전에 동원되는 비정규군이었다.

> 군인도 아니고 청방이라고, 대한청년단 청방(청년방위군),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 청방이 이제 여기도 청년회라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청년회라고... 부락마다. 그런 말이지 단체에요. 이제 군복입고 그랬는데 6 · 25때 개성은 말이지 이제 이만큼 전부 피란 나왔다 못나온 사람들이 허다해요. 갑자기 넘어와서. … 1 · 4후퇴 때 다 나온 것이지. 근데 9 · 28 진격하는 동시에 개성사람들은 이 단체 이 청방이라는 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교동면 삼선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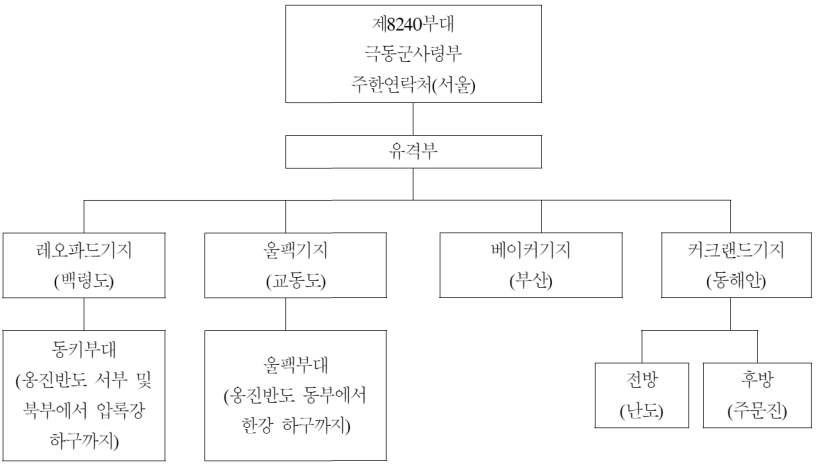
> 군인은 없고 여기 자체 그냥 그 이 지역에 대한 이북 들어가는 그 사람들 읍내리 본부 거기 있었고. 여기가 그냥 그때 그 자체로 군대를 만들었댔어요. 나소령이라고 있었는데 계급을 달아준 거야. 뒤로해서 그냥.(교동면 대룡리 ○○○)

---

11) 김귀옥, 2006.

12)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 2.

미군 8240부대의 유격대 편성(1952.1)



*출처: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 143.

당시 교동도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교동도에 울팩기지라는 별도의 비정규부대를 조직했고, 준군사조직이었던 이들은 '목총이나 몽둥이를 총 대신 들고 각개전투, 구보, 제식훈련, 수색정찰'[13] 등 훈련을 받았고, 북한 지역에 직접 침투하는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 소년단 활동을 하며 지내는데 강화에 경찰이 치안을 확보하고 군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인민군의 상륙 위협은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그때 강화에는 미8군 예속으로 을지병단이 창설되었다. 을지병단은 현역은 아니었지만 비공식 군인으로 군복이 주어지고 총기가 지급되어 현역에 준하는 군사훈련까지 실시되었다. … 강화도 전체에서 선발된 을지병단 전체 병력이 집합해 다음날 황해도 전장으로 이동했다. 70~80명의 을지병단은 읍에서부터 걸어서

13) 강화군재향군인회, 『강화도를 지켜낸 여린 꽃들의 항전』, 강화 향도방위 6.25 전쟁 증언집 (2015), p. 137.

양사면 인화리에 도착했고, 야음을 틈타 일부 병력은 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강 건너 연백 땅으로 침투했다.(강화군 양도면 ○○○)[14]

'타이거 여단'이 결성되면서, 교동도의 '무정부상태'는 잡혔으나 교동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고통이 뒤따랐다. '남성 부재의 사회'에서 3년 가뭄에도 불구하고 여단 규모의 유격대의 식량과 땔감 등을 감당하는 것은 소수의 남성들과 여성, 어린이의 몫이었다."[15] 남성들이 부재한 마을에서 '유격대'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평화가 온다는 세력과 조국이 해방되어야 평화가 온다는 세력 사이의 양보 없는 전쟁은 결국 모두의 평화를 앗아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양상은 총력전 체제로 전환되었다. 남북한 주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전쟁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

한국전쟁은 교동도 주민들에 씻지 못할 고통과 상처를 남겼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미봉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시간이 멈춘 섬, 감옥 아닌 감옥, 교동도 '민통선마을'에 고립되었다.

교동도, 시간이 멈춘 냉전의 섬

전쟁이 끝나고 교동도에는 여타 민통선마을과 다를 바 없이 '생존투쟁'[16]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머슴이 되기도 하고, 놀고 있는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갯가의 소금물을 머금은 땅에 소출의 기약 없이 낱알을 심었다.

---

14) 강화군재향군인회, 2015. pp. 138~140.

15) 김귀옥, 2006.

16) 전쟁 시기와 달리 전쟁 이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일상사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드러낸다. 전쟁이후의 생활고, 군인들과의 관계, 반공이데올로기 등. 김일한, 2016. 참조.

전쟁의 공포와 유격대의 횡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군대의 통제와 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더불어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 대신 반공이데올로기의 사상통제가 주민들의 의식을 통제했다. 섬을 지키는 군인들의 불법적인 명령과 통제는 대항할 수 없는 권력이었고, 주민들은 순응의 자기통제에 스스로를 가뒀다. '위험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해병대들도 먹을게 없어가지고 여기 동네, 마을마다 김치 해와라 쌀 가져와라 해가지고 … 4km 되는데 지고 가져다주고 … 술 먹고 그냥 개판치고 그랬어. 민간인 때리고. 그래서 민간인이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 (등화관재) 불 끄고 자라 그러고. 아휴.. (교동면 대룡리 ○○○)

남북한 사이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때면 주민들 사이에 외면과 공포가 공존했다.[17] 인간의 생존본능에 따라 공포와 불안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와 반공이데올로기로 내면화된 의식의 자기통제 현상이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귀옥의 연구 결과 역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구술자는 자세한 증언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지어 보도연맹원에 대한 언급도 회피하고 있다. 아마도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반공경보(red aler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18] 전쟁의 체험이 인간 의식의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민통선마을이라는 구조적 환경 역시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통제하는 것이다.

> 연평도 포사격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TV로 나오고 군인아이들도 죽고 그랬는데. 다음에는(북한의 다음 공격대상이) 강화라고 해가지고.

---

17) 민통선마을 주민들에게 군사충돌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이중적이다. 외면과 불안 혹은 공포.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민통선마을 주민들에게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18) 김귀옥, 2006.

강화라면 교동도 여기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때는 조금 겁먹었댔고.(교동면 대룡리 ○○○)

(연평도 포격 등) 그런 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여기 시골이니까. 여긴 괜찮았어요.(교동면 서한리 ○○○)

교동도, 평화의 섬 만들기

교동도는 행정구역상 지명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이고, 읍내리, 대룡리 등 17개 마을로 구성된 섬이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쳐지는 합수머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때부터 서해안의 주요 해상교통로 역할을 했다. 조선 중기에는 황해, 경기, 충청 삼도의 수군을 지휘하는 삼도수군통어령이 있을 만큼 군사적 요충지였다.

동남쪽으로는 강화도와, 북서쪽으로는 불과 2~3㎞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의 황해도 연백군과 마주하고 있다. 섬의 북부에서는 황해도 땅을 쉽게 바라볼 수 있으며, 높은 곳에서는 예성강 하구를 볼 수 있고, 날씨가 맑으면 개성 송악산도 보이는 곳이다. 바닷가 산기슭에는 실향민들이 세운 망향대가 있다.

섬이지만 비교적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 어업보다는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곳이다. 어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민통선마을로 구획된 이후 섬의 외곽에 철책선이 설치된 때문이기도 하다. 해안선 길이가 37.5km로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큰 섬이지만, 1997년 해안가에 25.5km에 철책을 설치하면서 바다로부터 격리된 섬이 되었다. 또한 1955년 교동도 남쪽으로 어로한계선이 설정되면서 어업은 더 이상 교동도의 생계수단이 되지 못했다.

섬에는 간척지와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고, 고구지(1976년 조성), 난정지(2006년 조성) 두 개의 저수지가 있다. 천수답이었던 교동도 농업은 간

척과 고구 저수지 조성으로 풍년이 들면 교동 주민이 13년은 족히 먹고 남을 정도의 수확이 가능하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풍요의 섬이다. 더불어 교동 쌀은 품질이 좋다고 소문나면서 인근 지역에 비해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교동도가 원래 농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곳은 아니었다. 민통선마을 구획 이후 50여 년간 국가이데올로기가 노골적으로 관철된 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섬 지방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교동도 마을에는 1972년 전기가 들어왔다. 1969년 당시 전국의 전기화율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국농어촌완전전화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교동이 우선순위 대상에 올랐다. 이유는 "해안초소 및 해안취약지구" 조건과 "접적(接敵) 및 수복지구", 즉 교동은 해안초소가 있는 해안취약지구이면서 동시에 황해도 연백이라는 이북을 접하고 있는 접적지구였기 때문이었다.[19] 전기 공급은 농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천수답이었던 논에 지하수를 댈 수 있었고, 1976년에 고구 저수지가 국책사업으로 조성되면서 교동도의 농업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은 것이다.

> 70년도 후반서부터는 교동도의 전성기로 봐야지. 쌀값도 좋고 그래서 땅도 사게 되고 그러니까.(교동면 지석리 ○○○)

나아진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수해야 하는 민통선마을의 규제가 교동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농사일은 갈수록 이윤이 줄고, 군사보호구역의 규제는 해소된 것이 없다. 대표적인 규제는 건축규제이다. 현재도 가축 축사를 만들어도 군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보호구역의 통제를 통해 유지해온 냉전시대의 '위험한 평화'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스멀스멀 교동도에 귀환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

---

19) 한국전력공사, 『배전백서』(1995), p. 100, 김귀옥, 2006, 재인용.

군부대 작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제재가 많아요. 소창고(축사)나 창고를 하나 지어도 승인받아야 해요, 군부대.(교동면 대룡리 ○○○)

땅값 떨어진 원인이 연평도 포격사건 때문에. 비쌀 때는 논 한 평에 12만원까지 갔댔어요. 이제는 7만원밖에 안가.(교동면 지석리 ○○○)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가는 만큼 마을의 변화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 민통선마을에 대한 규제 해소와 함께 찾아드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농가의 소득을 올려보자. 이런 의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안가 도로가 없고 농로로 가, 농로, 포장. 해안가 도로를 만들면 저기, 관광유치가 도움이 될 텐데.(교동면 지석리 ○○○)

주민들 사이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교동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교동면 대룡리 '교동제비집(기가하우스)'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평화와 통일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 협약식 및 선포식을 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강화군, (주)KT 등이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2018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해 교동 제비집(기가하우스)에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공원 조성,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공동체 활력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주민복지 사업, 주민 커뮤니티 사업, 소득증대 사업, 공동체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화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의 거점시설인 '교동 제비집'은 제비가 북한 지역인 황해도 연백평야의 흙으로 교동에 집을 짓는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교동도 주민이 참여하는 남북한 민간교류 사례도 있다. 일명 통일고구마 심기. 2007년 6월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가 후원해서 교동도 주민들

이 직접 금강산 금천리협동농장 3천 평에 강화 특산 속노랑 고구마를 심고 농사기술을 전수했다.

> 고구마 심어주러 갔댔어요. 고성, 강원도 고성으로. 고구마 한 3만대인가 하여튼 심었죠. 많이 갔고 갔댔지. 금강산 옆에 그 동네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산 가니까 그 사람들이 쌀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 개척을 못해서 모자라드만. 논이 전부 다 묵었어요. 그리고 연장이 없으니까 소로 밭을 갈아서 뭘 심었는데 비료 이런 거 자체가 없어가지고... (교동면 대룡리 ○○○)

"한강 하구를 마주보고 있는 북한의 마을과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한강하구를 평화지대"[20]로 만들고 싶었던 주민들의 열망은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물꼬'가 막혀버렸다. 전쟁 중에는 서로를 죽이고, 전쟁이 끝나고는 국가이데올로기에 막혀 북쪽 하늘을 스스로 버렸던 민간인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새로운 평화를 찾아 나섰지만 완고한 분단체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기간 중 민간인 사이의 이념전쟁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 중의 한 곳인 강화군 교동도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트라우마 치유에 나섰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막혀버린 남북한 '물꼬'가 문제다.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제는 남북한 정부가 대답할 차례다.

20) 김영애 (사)새나우리누리 대표, 2007년 당시 민주평통강화군 협의회장.

지난해 10월 29일에는 통일부가 후원하고, (사)새우리누리 평화운동 등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제1회 '평화의 섬 교동 통일문화제'가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교동도를 잇는 뱃길을 열기 위한 '7 · 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21]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교동도, 강화도, 김포 지역에서 한강 하구는 조강(祖江)으로 불린다. 조상들의 강이라는 것이다. 화려했던 조강(祖江) 시절 즉, 할아버지 강의 역사를 잃어버린 후손들이 찾아낸 것은 전쟁의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전협정 조문이었다. 그 조문은 어디에도 조강 출입을 막거나 철책선 설치를 규정한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조강은 민간선박에게 개방'한다는 조항만 담겨있을 뿐이다. 한강 하구 인근 주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면 조강(祖江)이다. 조강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도 있은 흐릿한 희망을 그들은 안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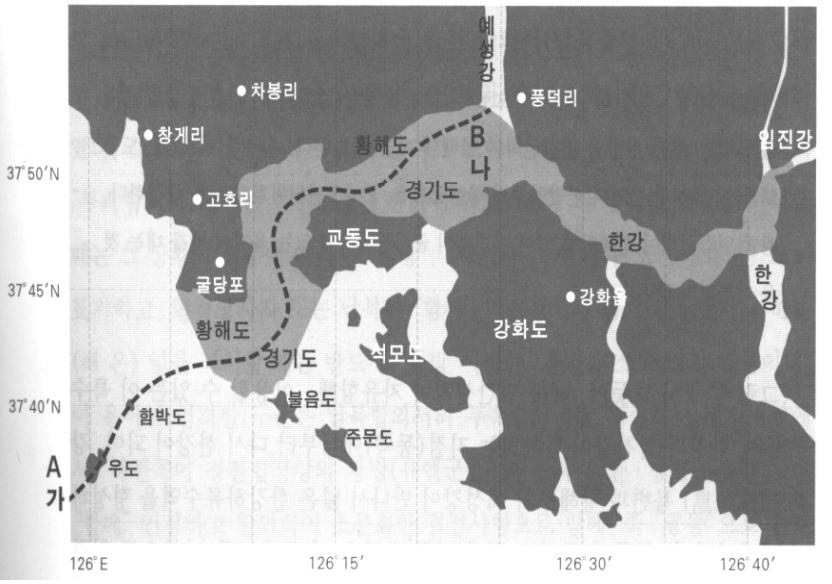
> 아우, 거긴 많지. 거긴 뭐 물 반, 고기 반이여. 아, 못 가지. 여기 DMZ 철책으로 해서 막아져서. 큰 포구가 활용을 못해서. 근데 언젠가는 남과 북의 다리가 놓아져야 할 상황이지. 가깝고. 개성이 가까우니까. 공항이 가깝지 않습니까.(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

> 그러니까 인제 직금 젊은 사람들 뭐 많지도 않지마는 외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한강이 터지고 더 이상 또 한 번 평화가 된다 하면은 ... 뭐를 동네가 득이 되게끔 헐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야.(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

---

21) '7 · 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기념해 한강하구 자유항해 수역을 복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평화운동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전협정 첨부지도 제2도



*주 1. 정전협정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조 5항 한강 하구의 수역.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 하구 수역은 민간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자유항로이다. 지도에 표시된 'A가—B나' 점선 라인에 대해서 정전협정은 "**(주1) 'A가—B나' 선(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은 서부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선은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또한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2. 정전협정 제1조의 제5항: 한강 하구에 관한 규정,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남북한 어느 쪽 선박도 운항하지 못하는 사실상 엄혹한 '비무장지대 강(江)', 이곳에서 남북한 쌍방이 '자유롭게 조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전협정 규정을 되살리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다. 가정이지만,

우리 후손들은 조강의 개방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낸 가장 정서적인 방법이었다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또는 정전협정의 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매력적인 처방은 단지 한강 하구 민통선마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마을회관앞 현판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마을은 '남북간 자유지역'(Free Zone)입니다."라는 선언을 담고 있다.[22)]

대룡시장내 가게의 처마밑 제비집

연산군 유배지 터

대룡시장의 명물 교동이발관

22) 경기도 민통선마을 연구 결과는, 김일한, "중무장지대의 비무장 민간인들: 경기도 민통선마을-갇힌 평화 · 강요된 저발전의 기억과 경험," 『분단과 갈등의 '위험한 평화': DMZ 남북군사충돌과 '경계의 평화'』, 동국대 · 신한대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 pp. 97-116 참조할 것.

교동읍성터

평화의 섬 교동을 홍보하고 알리는 대와민속공방
(대표 김영애)

교동연륙교 건설 이후 교동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졌지만, 관광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교동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룡시장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현재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었다. 섬의 최고 번화가이자 1970~80년대 정서를 자극하는 가장 핫(hot)한 문화상품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만든 역사적 유물이다.

또한 교동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비교적 잘 보전하고 있는 곳이다. 고려시대 안향이 원나라에서 공자상을 들여와서 향교에 봉안했다고 전해지는 교동향교가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연산군 등 왕실의 유배지가 되었고, 근대 초기에는 외국인들의 해상 출입로인 까닭에 기독교가 일찍이 전해지면서 교동성당의 존재가 교동도의 역사를 더해준다. 또한 환경에 유해한 제조업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흔치않은 제비가 찾아오는 자연친화적인 섬이다.

교동도, 격강천리(隔江千里)

격강천리라더니[23]

이범옥 (교동면 대룡리)

바라보고도 못가는 고향일세
한강이 임진강과 예성강은 만나
바다로 흘러드는데
인간이 최고라더니 날짐승만도 못하구나
새들은 날아서 고향을 오고 가련만
내 눈에는 인간을 조롱하듯 보이누나
비 오듯 쏟아지는 포탄 속에 목숨을 부지하려
허둥지둥 나왔는데
부모형제 갈라져 반백 년이 왠 말인가?
함께 나온 고향친구 뿔뿔히 흩어지고
백발이 되어 저 세상 간 사람 많은데
남은 사람 고향발 디딜 날 그 언젠가!

한국전쟁 당시 교동도로 피난 온 연백 지역(당시 3·8선 이남 지역) 이주민이 3만 명이 넘었다는 구전이 전해지지만, 현재 교동도의 피난민 1세대의 인구비는 5~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교동도의 전체 인구가 1,409가구, 3,047명(2014년 현재)이니 150~300명 정도의 실향민 1세대가 생존해 있는 셈이다.[24] 피난 1세대들이 다수가 사망하거나 외지

23) 강을 사이에 둔 것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왕래가 드물어 천 리나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멀리 느껴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연백실향민 이범옥 할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2008년 쓴 망향가이다. 연백군실향민동우회, 『격강천리라더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강화군협의회 (2008).

24) "열 집에 한 꼴도 안 될 거야. 지금." 교동면 난정2리 최암전(피난 1세대)의 조카 명제욱의 증언.

로 이주했고, 2세대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을 선대의 구전을 통해 전해들을 뿐이다.

그러나 피난 이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생존해 있는 실향민들의 귀소본능은 현실의 무게를 넘어 아련하게 남아 있다.

교동망향가[25]

*자료: DMZ스토리(146회), '교동망향가', 강원민방, www.g1tv.co.kr (2015.01.03. 방송)

아니, 그때 당시에는 평화가 된다고 했어요. 우선 좀 나갔다가 사람 몸만 살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나온 거지. 아 그걸 알고 나왔어요?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 들어갈 때도 며칠 한 평화 되니까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게 꽉 막힐 줄 알았나?(교동면 대룡리 ○○○)

남북한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리고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있으니, 남북평화회담을 통해 한강 하구를 열어 왕래하는 길을 복원한다면 민간선박을 통해 남북을 오갈 수 있겠지요. 그리 된다면 칠십 세 이상 노인들을 우선 고향

25) http://www.g1tv.co.kr/program/index.php?PGM_ID=D100000001&code=player&IDX=3405.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수시로 자유로운 고향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고향을 돕고 고향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야겠지요. 그 일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내 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26]

전쟁통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나, 마을에 거주하던 원주민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평화를 이야기한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사라질 줄 모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훨씬 넘었다. 교동도 주민들은 위험한 평화를 넘어 새로운 평화를 고민하고 있다. 교동도는 군사충돌의 공포를 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치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체념이 낳은 위험한 평화를 대신해서 적극적이고 새로운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27] 모두가 희망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와 화해를 통합적이고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대상들의 공동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평화를 요구하는 것, 교동도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기록된 역사는 사건이나 인물의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주체로 거듭난다. 실존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역사가 된다. 여기 민통선마을에, 살아있으며 온전한 기억과 경험이 역사로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과거가 있다. 역사로서 민통선마을과 교동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26) 고향이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연성리인 송태호의 증언, 연백군실향민동우회, 『격강천리라더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강화군협의회 (2008).

27) 서보혁 · 정욱식,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6), p. 22.

【참고문헌】

강원민방. ‘교동망향가.’ DMZ스토리(146회), www.g1tv.co.kr(2015.01.03 방송).

강화군재향군인회. 『강화도를 지켜낸 여린 꽃들의 항전』. 강화 향도방위 6 · 25전쟁 증언집, 2015.

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 『6 · 25 參戰 江華靑少年遊擊隊 奮戰史』. 2008.

김귀옥.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해방 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 (2008).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강화도 교동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71호 (2006).

김일한.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16).

김일한. “중무장지대의 비무장 민간인들: 경기도 민통선마을-갇힌 평화 · 강요된 저발전의 기억과 경험.” 『분단과 갈등의 ‘위험한 평화’: DMZ 남북군사충돌과 ‘경계의 평화’』, 동국대 · 신한대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

서보혁 · 정욱식.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연백군실향민동우회. 『격강천리라더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강화군협의회, 2008.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한국전력공사. 『배전백서』, 1995.

히즈키아스 아세파.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적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서』. 춘천: Korea Anabaptist Press, 2014.

김일한(KIM, Il Han)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였다. 북한의 시장작동 메커니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의 시장을 비롯한 경제 운용 메커니즘을 연구해왔고,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화, 북한체제 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북한의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중국과의 비교” 등의 논문과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아카넷, 2013, 공저),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선인, 2014, 공저) 등이 있다.